

: 2025 11 4 10:22



거문도닥나무 / Wikstroemia ganpi (Siebold & Zucc.) Maxim.

| 구분 | 설명 |
|------|--|
| 생물분류 | 식물 |
| 속국명 | 산닥나무속 |
| 과국명 | 팥꽃나무과 |
| 과명 | Thymelaeaceae |
| 일반특징 | 요약설명 : 팥꽃나무과 낙엽소관목으로 우리나라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남도 남해군, 부산시 동래구에 분포한다. 분포지역 : 한국(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남도 남해군; 부산시 동래구) 형태 : 낙엽소관목이다. 크기 : 높이는 1m 내외이다. 꽃색 : 붉은색 개화기 : 6월,8월,5월,7월 숲의 가장자리에서 자란다. 가지는 원줄기 아래쪽에서 나누어져 모여나기하고, 위쪽에서 원뿔 모양의 많은 일년생가지를 낸다. 가지 색은 연녹색에서 붉은갈색으로 변한다. 가지에 털이 있다가 없어지며, 새가지의 윗부분은 매년 대부분 말라 죽는다. 잎은 어긋나기하고, 잎 양끝 모두 예리하거나 뭉툭한 형이다.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고 뒷면 맥위에 드물게 털이 있다. 표면은 진녹색이고 뒷면은 연녹색이며 잎자루는 털이 빽빽하게 있다. 꽃은 갈라진 가지 끝과 위쪽의 잎겨드랑이에서 짧은 총상꽃차례를 만든다. 통모양의 꽃이 여러 개 달리며 꽃자루에 털이 많다. 꽃은 양성꽃으로 연한 붉은색이고 꽃받침대는 비늘모양으로 깊게 갈라진다. 열매는 수과고 떨어지지 않는 꽃받침통속에 생기며, 달걀 모양으로 양 끝이 뾰족하다. 나무처럼 딱딱한 껍질속에 씨앗이 있고 씨앗은 표면으로 돌출된 선이 있다. |